

우리의 책값에 관한 몇가지 생각

고급 장정본과 함께 페이퍼 바운드의 값싼 책도 필요

김종주

반포 신경정신과의원장·연세대 의대 외래교수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다. 비록 좌우가 뒤바뀐 허상이라 할지라도 거울이 아니었던들 어찌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시인, 이상(李箱)의 이야기다. 그런 거울노릇을 해주는 것이 타자(他者)다. 그 큰 타자 중의 한 사람이 내 아내다. 나는 내 아내를 통하여 간혹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내 아내는 내가 가장 행복해 하는 순간이 마루바닥에 깔린 양탄자 위에 엎드려 새로 사온 책에다 이름과 날짜와 내가 근무하는 병원 이름을 적어 넣을 때라고 한다. 그런 순간이 재수 좋으면 일주일에 한번, 기껏해야 한 달에 두번 정도다.

수입원서 정가의 불합리성

영국의 ‘로틀리지’는 참으로 좋은 책을 많이 찍어내는 고마운 출판사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책값이 좀 비싼 편이란 점이다. 특히 권위 있어 보이라고 검정색 딱딱한 표지로 꾸민 것은 가슴 철렁할 정도로 정말 비싸다. 검정색이라면 몇 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큰 차들이 무조건 선호했던 그런 색깔이다. 저 높은 관청의 영감이나 어르신네를 모시는 차로 보이고 싶어서였겠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반값인 페이퍼 바운드를 함께 펴내서 가난한 학자들을 배려해 주기도 한다. 나는 그 고급스런 검정색 하드커버를 꺼냈다가 제 자리에 끼워놓는 행위를 몇 번씩 찾아가 반복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권만 남았는데도 페이퍼 바운드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땐 하는 수 없이 그 비싼 장정본을 사고 만다. 몇 달쯤 뒤에 가서 그 화려한 색깔의 페이퍼 바운드가 눈에 떨 땐 분명치 못한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도 싼 값에 또 한 권 사고 싶어진다. 무모한 책욕심이라. 나와 함께 라깡 세미나를 하는 제자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낙서하며 읽을 수 있는 허드레용으로라도 사들 수 있으니까.

2년전 미국 정신의학회에 갔다가 뉴욕의 ‘반즈 앤드 노블’이란 책방에서 마담 샤편이 쓴 《자끄 라깡》이란 책을 16.95달러에 구했다. 다른 책들은 모두

보따리로 포장해서 부쳐버리고 이 책만 품고 돌아다닐 정도로 좋아했던 놈인데, 귀국해서 며칠 뒤에 교보문고에 가보니 거짓말처럼 똑같은 책이 서가에 꽂혀 있었다. 그냥 빼두고 계산대로 갔다. 아무래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정가표를 보니, 19,500원이었다. 책값은 1달러에 1000원쯤 받는 일이 예사니까 내 좁은 소견머리로는 그 1000대 1의 환율에 세금이며 운송비며 이문까지 몽땅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보나 마나 뻔한 일이겠지만 따져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그 직원의 말이 내가 잘못 알았을 거란다. 마침 그때 내 책가방 속에 그 책이 들어 있었다. 책을 꺼내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산 것이라며 거기에 붙어 있는 정가표를 보여줬다. 아무리 외국책이라지만 장사꾼한테 더 비싸게 팔 리가 있겠느냐며.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는 환율로 속상하고 정가표로도 억울해야 하는 처지다. 더구나 그 돈은 세금 다 떼고 받은 월급인데.

요즘엔 교보문고에 갈 때마다 ‘교보 북클럽’ 카드를 꼭 들고 간다. 이 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계산대에서 ‘대학’에 있느냐고 물어왔다. 참으로 딱한 질문이다.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있어야, 그러니까 대학교수여야 1할을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책 사보기가 어렵다. 학교도서관용으로 구입하면 몰라도, 더구나 의과대학 교수들은 복사쟁이들이 새로 나온 책들을 쪽 복사해서 각자 연구실까지 들고 가 코앞에 진열해 보이면 그 중에서 맘에 드는 몇 권을 골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버릇 들여왔기 때문에 책방에 올 필요가 없어져버렸다.

책값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국에 있다. 파리에 있는 ‘지베르 조셉’이란 책방이다. 그곳에선 노란 딱지가 붙은 책을 먼저 골라잡는 것이 현명하다. 같은 새책이라도 이 딱지가 붙어 있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그라미 딱지 속엔 ‘헌 책’ 또는 ‘싼 책’이란 뜻의 ‘occasion’ 또는 ‘d’ occasion’이란 글씨가 써여 있다. 이 책의 뒤편엔 도서관 대출표처럼 표 한장이 붙어

해가 갈수록 책값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책은 어떨까. 몇 년전에 나온 책이라도 정가가 오르면 구정가 위에 새 정가가 붙어 더 비싸져버린다. 이 방법을 불란서에 수출해버릴까? 그 친구들은 아마

프랑스의 한 책방에선 새 책이라도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책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책 뒤편에는 해마다 책값이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해놓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몇년 전에 나온 책이라도 정가가 오르면 구정가에 새 정가를 붙여 더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장사할 줄 모르나 보다. 그리고도 과연 이익이 있을까? 하긴 예로부터 밑지는 장사라는 말은 믿을 말이 못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네 책장사들은 얼마나 남길까? 더구나 판매가는 정가라 우기고 자기네들 구입가는 얼마나 할인을 강요하는지 우리같은 소비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학에 있을 때 책 몇 권을 번역해본 적이 있다. 출판사 사장은 번역책을 출판하면서 책 정가를 매길 때마다 상의하잔다. 그때마다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원서의 반액 정도만 붙여도 비싼 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책도 제법 값이 나간다. 책 한 권에 2만원 정도 나가는 책도 더러 생겼다. 그러나 이왕이면 같은 책이라도 비싼 장정본을 내놓을 때 싼 페이퍼 바운드도 함께 내놓으면 고맙겠다.

번역 안된 필독서 수두룩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한테 제 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보라고 권했다. 나같은 세대는 ‘반공 반일’을 국시로 삼아 교육받은 덕분에 일본어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지니며 살고 있다. 처음 라깡의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겨우 영어책 정도만 읽을 수밖에 없는 실력 탓으로 붙어책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논문을 쓸 때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참고문헌들이 수두룩함을 알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본어 문헌을 뒤져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번역 안된 책이 없다시피 해서 원하는 라깡 책은 모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솔직히 일본사람들이 부러웠다. 그 까다로운 불어를 몰라도 라깡 공부할 수 있겠구나! 우리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도 괜찮은 책들을 번역하는 것이리라. 이왕이면 검정 표지에 금박을 새겨 고급스런 장정본을 만들고 싶겠지만 페이퍼 바운드로 값싼 책도 함께 펴내야겠다.

그러나 번역은 반역(反逆)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김현 선생은 생전에 ‘훌륭한 오역’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설익은 어설픈 번역보다는 꼭 삭아 잘 익은 그런 번역을 보고 싶다. 이왕이면 저작권 시비를 말끔히 씻어버려 원본을 발행한 나라의 잡지에 우리 번역본을 참고문헌으로 삼은 그런 논문을 쓰고 싶다. 내 아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또 말리겠지만 그런 논문을 하나 쓰고 싶다. ❖